독자투고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우리 모여 함께!

이 종 희
질라라비농장

지금부터 하는 말은 허튼 소리가 분명하니 해량 바란다.

4월. 육계 자조금 대의원회에 갔었다.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에 참여는 당연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남의 장에 온 것처럼 선뜻 다가오질 않았다. 한마디로 중구가 난방이었다.

무엇을 위한 회의였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육계 자조금 공동준비위원의 말과 임시로 뽑힌 임원의 기대거나 변명어린 말들만 난무한 채로 시간만 흘리고 있었다.

회의의 목적과 진행을 위한 형식은 중요하다. 절차에 따른 방식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 마이크에 중독된 사람처럼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났거나, 남의 말에 트집을 잡아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회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 어른들의 점잖은 회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 참석자에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한다. 비방이나 말을 쓸데없이 길게 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음.

처음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여러 대의원의 기름진 말들이 오고 갔다. 그 중 전라도 쪽 대의원의 말은 그야말로 피를 토했다. 물론 회의 진행을 위한 방식에는 조금 위배됐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회의 진행 내내 든 것은 왜일까?

공동준비위원의 요령처럼 흔드는 법조문이 본래의 회의 목적과 의미에 얼마나 상반되거나 본말을 흐려놓는지 알아야 한다. 회의 진행을 위해 깊은 생각 없이 뽑힌 의원은 농가의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잠꼬대를 하듯 어떤 자리에서나 설파해야 한다. 강경한 발언을 하기를 좋아하는 의원은 자신이 하는 말이 강경을 위한 강경은 아닌지 말하

기 전 반드시 생각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는 진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방법으로 바꾸는데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가 원래의 목표를 흐릴 수 있기에 똑똑한 자의 웅변은 위험 할 수 있다. 논리는 하도 교묘해서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당장의 현실은 미래보다 중요하다. 당장 벌거벗고 배가 고픈데, 비와 바람을 막아줄 집이 필요한데 설계만 하고 있다면 가장으로 점수는 빵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도 지역 대의원의 말은 경청해야 했다.

그쪽 지역 장사꾼들 회사의 장들은 장수는 할 것이다. 하지만 누적된 원망과 욕으로 인해 원만한 성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의 스승은 느닷없는 질문을 하신다. "개와 사람 중 누가 보편적으로 잘 깨달을까?" "사람이죠.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지능지수도 높고요." "답은 개다. 바로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지. 깨달음에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면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계속 흙탕물에 빠지고 뜨거움에 데는데, 개는 그러질 않는데 누가 과연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스승의 억지는 항상 교훈을 담고 있다. 어떤 대의원이 "나는 닭을 믿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란 외침에 뭔가 느낀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갈 길은 멀다. 한걸음씩 걷자. 부탁이 있다면, 제발 말 많은 자의 결론처럼 흐리멍덩하고 뭔가 빠진 듯한 감을 주는 회의는 그만하자. 나는 대의원들의 성숙하고 수준 높은 현실 인식에서 우리 양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못 보는 것일까?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 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